

일본 경제 동향_2017년 12월

(일본경제전망)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2
2.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6
3. 엔고·고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경제전망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반전	16
2. 일본인 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6	2017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7.7	116.2	116.5	-
GDP증가율(연율,%)	1.2	1.0	1.6	1.2	2.5	2.5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70.1	75.9	20.5	24.0	18.9	21.2p)	-	-	-
		23.4	24.3	7.2	7.2	5.5	6.6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17.1	20.8	10.3	11.5	2.9	4.5	4.2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전년동기비	0.5	△0.3	0.2	0.3	0.2	-	0.1	0.3	0.3
		0.5	△0.3	△0.3	0.2	0.4	-	0.7	0.7	0.8
실업률(%)		3.4	3.4	3.1	2.9	2.9	2.8	2.8	2.8	2.8
수출(조엔)		75.6	70.0	18.6	19.0	18.8	19.6	6.3	6.8	6.7
수입(조엔)		78.5	66.0	17.2	18.6	18.1	18.4	6.2	6.1	6.4
무역수지(조엔)		△2.9	4.1	1.4	0.4	0.7	1.2	0.1	0.7	0.3
경상수지(조엔)		16.4	20.6	4.2	5.8	4.6	7.0	2.4	2.3	2.2
환율	달러	121.1	108.8	109.4	113.6	111.1	111.0	109.9	110.7	113.0
	원화(100엔)	935	1,068	1,059	1,015.7	1,020	1,020.3	1,030	1,022	1,002
금리(10년물,%)		0.36	△0.051	△0.007	0.072	0.044	0.046	0.041	0.022	0.076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7,951	19,241	19,503	19,880	19,670	19,924	21,267
										22,525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세 지속

- '17.10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6.5로 전월비 0.3p 개선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

- '17.10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3%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1,114억 엔 흑자

- '17.11월 수출은 6조 9,204억 엔, 수입은 6조 8,071억 엔

☐ (환율) 엔고 반전

- '17.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2.9 엔으로 전월비 0.01% 엔고

* '17.11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79원으로 전월비 2.3% 원고·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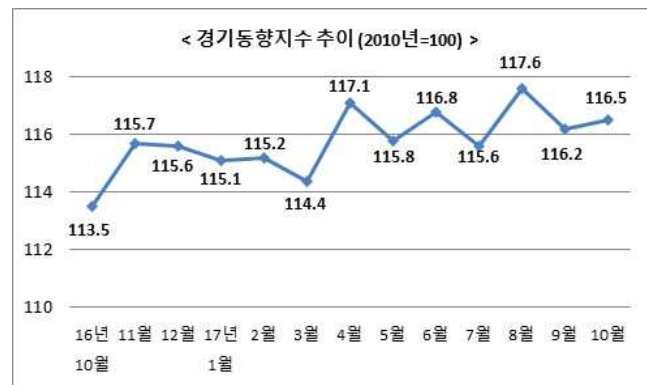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지속

- 수출과 개인소비는 회복이 한풀 꺾이고 있으나 생산 활동은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음
- 고용·소득 정세도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생산량을 상회하여 추이하고 있음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도 전월보다 0.3p 개선된 116.5를 기록, 2개월 만에 상승

- 일본내각부의 기조판단은 「개선되고 있다」를 유지
- 전월과 비교할 수 있는 7개 지표중 4개 지표가 개선, 유효구인배율의 개선이 전체를 끌어올린 외에, 상업판매액과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 생산이 견조를 보임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과 공공투자의 증가, 견조한 개인소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12월 8일 발표된 신경제정책 패키지 등의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성장량을 상회하여 추이할 전망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6.1로 전월보다 0.4p 하락

<GDP>

- 일본 내각부가 12월 8일 발표한 2017년 3분기(7-9월) 실질GDP(개정치:2차 속보치)는 전기 0.6% 증가, 연율 환산으로 2.5%증가로 1차 속보치(연율 1.4%)로부터 대폭 상향 수정됨
 -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외에 재고의 누증이 성장을 끌어올림
 - 플러스성장은 7분기 연속
- 아시아 지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 호조로 외수가 증가한 외에, 설비투자도 견조를 보인 한편,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개인소비는 감소함
- 실질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0.1%p(1차 속보치 -0.2%p), 외수는 1차 속보치와 같은 0.5%p로 내수가 경기를 지탱했던 전기와 견인력이 역전됨
 - 항목별로 보면, 개인소비는 1차 속보치와 같은 0.5% 감소로 7분 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장마와 태풍 등 기후불순으로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이 부진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설비투자는 전기비 실질 1.1% 증가로 1차 속보치의 0.2% 증가로부터 대폭 상향 수정됨
 - 기업수익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함
 - 방일외국인(인바운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에 의한 시설투자가 증가
 - 수출은 1차 속보치와 같은 1.5% 증가, 수입도 1차 속보치와 같은 1.6% 감소함. 對 미국 자동차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수입량은 감소함
- IMF는 선진국들의 투자와 무역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7월 시점의 예측치보다 0.2%p 상향 수정된 1.5%로 예측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분	2015	2016	2015	2016				2017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 0.2	0.5	0.4	0.2	0.3	0.4	0.7	0.6p)	
전기비연율	1.2	1.0	△ 0.9	2.2	1.6	0.9	1.4	1.5	2.9	2.5p)	
전년동기비			1.1	0.6	0.7	0.9	1.5	1.5	1.6	2.1p)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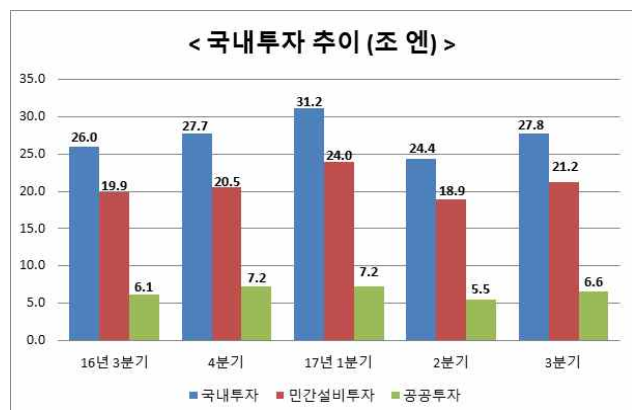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3분기 국내투자, GDP의 20.7%

- '17.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1.2% 증가한 27.8조 엔으로 GDP의 20.7%

□ (민간설비투자)

- '17.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1.2조 엔, 국내투자의 76.3%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판단은 부족감이 보임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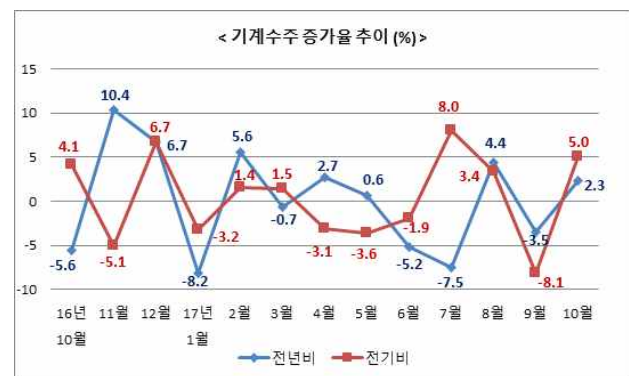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0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5.0% 증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증가

□ (공공투자)

- '17.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6.6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7%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건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11.9% 증가, 10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22.1%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7년 12월 8일 각의에서 결정된 신경제정책 등이 공공투자의 확대에 이어질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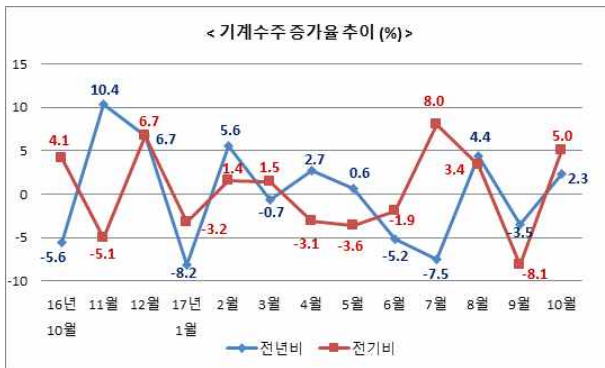
□ '17.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3%

- '17.10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3(2015년= 100)으로 전월비 0.3%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8% 상승,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전년동월비)이 확대될 것이나 횡보권내에서 추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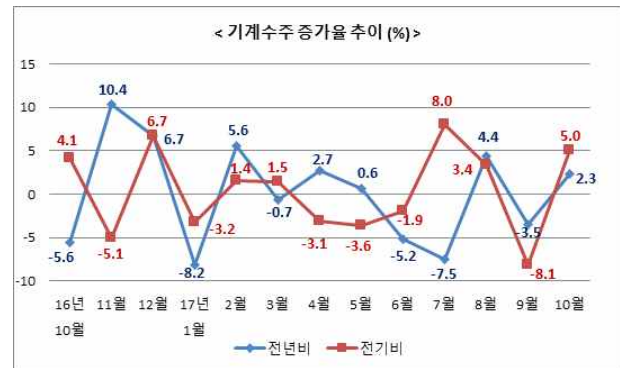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7.10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 및 전년 월과 같은 2.8%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한 노동수급의 팽박이 4개월 연속 낮은 수준으로 이어짐
 - 완전실업자 수는 187만 명으로 전월비 1만 명 감소
 - 자발적 이직자는 감소, 비자발적 이직자는 증가
 - 취업자 수는 6,544만 명으로 6만 명 감소
- 유효구인배율도 최고수준
 - '17.10월 유효구인배율은 1.55배로, 43년 9개월 만에 최고수준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업 분야에서 구인 수가 증가
 - 기업의 구인 수는 증가하는 한편, 구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일손 부족감은 커지고 있음. 경기회복에 인구감소까지 겹쳐 완전고용상태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중 합)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17.11월 무역수지는 1,114억 엔 흑자로 전월에 이어 연속 흑자폭이 축소
-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상회한 데 따른 것임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2,657 엔에서 4,310억 엔으로 증가된 동시에,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447억 엔에서 6,601억 엔으로 증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410억 엔에서 2,284억 엔으로 감소

< 2017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7	14.0	-1.5	6.9	16.2	3.0	82.8	30.6
수 입	6.4	18.9	4.9	6.8	17.2	6.3	77.3	27.7
수 지	0.3	-40.7	-57.1	0.1	-22.6	-66.7	5.5	96.4

자료 : 재무성

□ (수 출) '17.11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7.11월 수출은 전월비 3.0% 증가한 6조 9,204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비 2.5% 증가

- 5대 수출 품목 및 수출순위 모두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
 -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15.0%로 가장 큼

<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587	6.5	0.4	10,295	-8.5	-2.8	106,308	3.4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80	9.1	-2.8	3,146	6.5	-9.6	36,040	10.6
3	자동차부품	3,249	6.3	-4.0	3,049	10.4	-6.2	34,941	12.8
4	철강	2,672	15.6	1.2	2,271	-12.1	-15.0	29,147	12.9
5	원동기	2,239	10.5	-8.3	2,229	11.1	-0.4	24,660	13.2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
 -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6.8%로 가장 큼
 - 한국에 대한 수출은 4.7% 증가

<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3,541	26.0	5.5	13,797	25.1	1.9	133,836	21.0
2	미국	12,817	7.1	-1.2	13,686	13.0	6.8	137,994	8.0
3	ASEAN	10,250	19.5	0.6	10,874	22.9	6.1	107,676	14.9
4	EU	7,534	15.8	-1.7	7,173	13.3	-4.8	78,646	8.2
5	한국	4,951	18.3	-1.5	5,186	20.5	4.7	54,349	20.4
6	대만	3,842	4.8	-2.7	3,997	13.7	4.0	41,244	7.2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7.11월 수입도 금액, 물량 모두 증가

- '17.11월 수입은 전월비 6.3% 증가한 6조 8,071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5.3%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의약품간 순위가 바뀜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0.8%로 가장 큼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의약품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15.4%로 가장 큼

<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5,721	43.0	9.2	6,340	28.3	10.8	63,764	29.3
2	액화천연가스	2,800	15.5	3.5	2,971	-1.4	6.1	35,379	19.6
3	의류·동부속품	2,806	21.9	-11.8	2,656	16.5	-5.3	27,023	-2.1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91	23.0	-1.6	2,565	23.4	3.0	25,613	11.9
5	의약품	2,492	2.8	5.5	2,109	-12.7	-15.4	24,385	-4.4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U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증가

- 호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6.4%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14.2% 증가

< 2017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6,198	14.3	3.4	18,107	21.6	11.8	167,333	7.7
2	ASEAN	10,084	21.8	9.3	10,271	19.2	1.9	104,984	14.5
3	EU	8,037	18.1	7.2	7,673	6.8	-4.5	79,656	7.1
4	미국	6,370	3.1	-6.4	7,086	12.3	11.2	78,739	18.0
5	호주	3,272	12.6	-0.2	3,808	17.6	16.4	39,626	33.3
7	한국	2,541	12.2	0.4	2,902	20.2	14.2	28,499	16.4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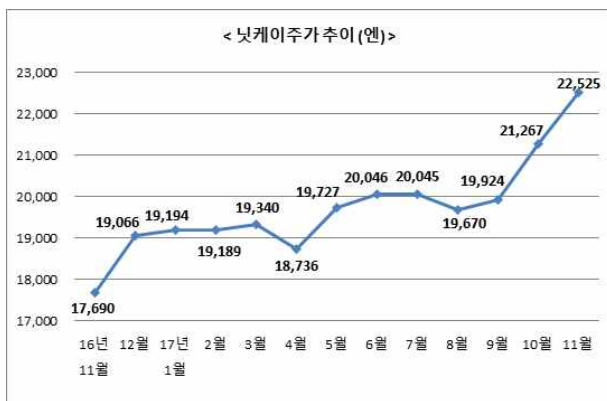
3. 엔고 · 고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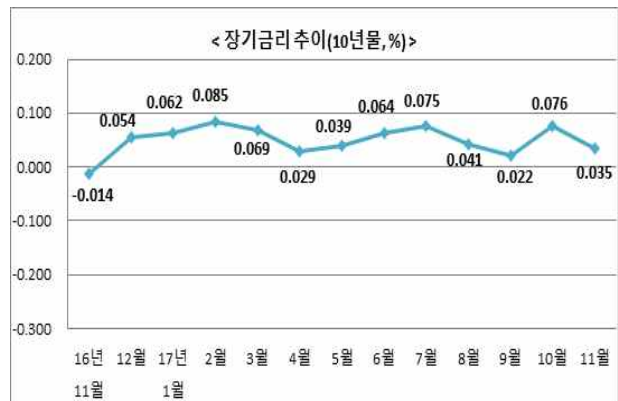
- '17.1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5.9% 상승한 22,525엔

□ (금 리)

- '17.1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47.8% 하락한 0.035%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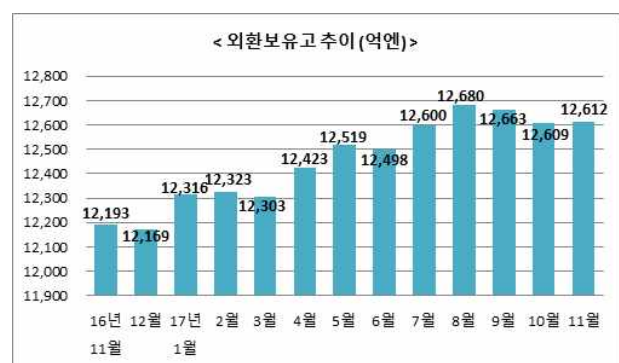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7.11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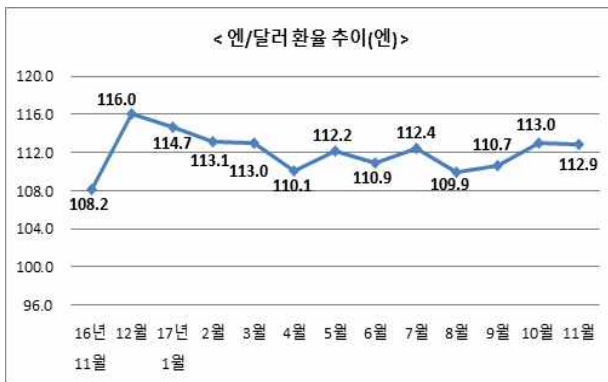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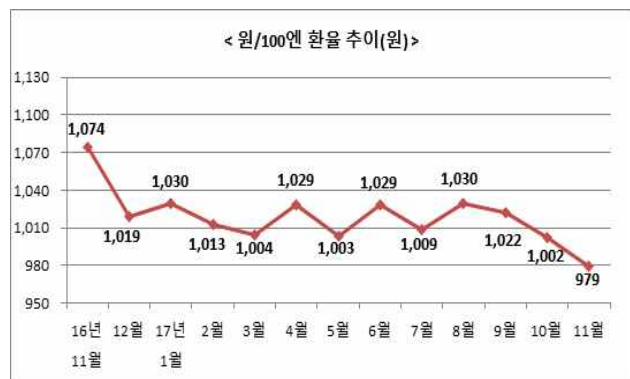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7.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01% 상승한 112.9엔(엔고)
 - ‘17.12월 들어서는 112엔대를 유지, 11월 20일 현재 112.95엔
- 최근 엔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2018년에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엔저·달러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당분간은 달러당 110-115엔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17.1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79원으로 전월의 1,002원에 비하여 2.3% 원고·엔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
- ‘17년 10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2,058억 엔으로 전월비 6.6%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6		2017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8월	9월	10월	1-10월
금 액		681,657	186,332	171,402	105,158	114,871	29,200	45,020	42,058	469,647
증가율	전기비	-2.1	45.9	-8.0	-49.3	9.2	-28.2	54.2	-6.6	-
	전년동기비	-2.1	5.8	-21.2	-19.4	-38.4	-43.8	-43.8	-22.3	-18.0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에 대한 투자가 55.9%의 큰폭 감소

- 미국에 대한 투자도 7.3% 감소

○ 반면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1,151.4%, 284.7%의 큰 폭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81억 엔으로 전월비 55.7%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큼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6		2017						
	금액	증가율*	2분기		3분기		10월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81,657	-1.7	105,158	-49.3	114,871	9.2	42,058	-6.6	469,647
아시아	80,321	-43.3	19,058	-4.4	21,355	12.1	6,678	-11.3	67,019
중 국	13,076	-10.8	3,721	9.5	3,417	-8.2	1,192	-4.4	11,728
한 국	3,461	-26.6	1,026	16.3	1,280	24.8	281	-55.7	3,469
북 미	181,747	-23.4	39,646	-22.9	42,975	8.4	12,691	-6.6	146,768
미 국	176,406	-23.4	38,646	-23.5	41,689	7.9	12,340	-7.3	143,203
중남미	36,110	58.7	2,682	-33.0	3,613	34.7	9,425	284.7	19,718
유 럽	366,263	35.8	40,168	-66.1	42,980	7.0	10,169	-49.5	211,647
대양주	12,925	-32.4	1,489	-56.0	1,994	33.9	1,238	97.8	8,100
중동	1,581	-12.4	263	-72.2	281	6.8	1,314	1,151.4	2,805
아프리카	7,297	6.6	1,849	4.9	1,673	-9.5	543	-4.9	5,256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경제전망

1. 일본 민간경제연구기관의 경제전망

1) 개관

-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일본의 22개 민간연구기관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민간 연구기관의 실질 GDP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017년도에 1.6%, 2018년도는 1.2%, 2019년도에는 0.8%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수출과 설비투자 등의 기업부문을 견인역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래 시나리오에는 변화가 없음
- 특히 201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제의 성장속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의 증가기조가 계속되는 동시에 기업수익의 개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의 증가 경향이 계속될 전망
- 2018년도는 해외경제의 확대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은 감속될 것으로 보이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건설 등 수요확대가 본격화되는 외에, 수도권에서의 재개발안전의 증가 등이 경기부양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설비투자에 의해 성장이 뒷받침될 전망이다
- 개인소비도 고용·환경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 힘은 약하나 완만한 회복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2017년도, 2018년도는 세계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경기회복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연구기관들 간 이견이 없음
- 2019년도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상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많음
- 세율의 인상폭이 전회보다도 적고 가수요가 발생하기 쉬운 주택, 자동차 등 대체 사이클이 긴 고가품은 전회 인상 시에 앞당겨 구입된 비율이 높았던 관계로 가수요, 반동적 감소 모두 전회에 비하여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2) 부문별 전망

(1) 개인소비

- 2017년 7-9월기 개인소비는 전기비 -0.5%로 7분 기만에 마이너스로 반 전되었음. 그러나 4-6월기에 고성장을 한 점도 있어 전기로부터의 반동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음
- 기후불순에 의한 서비스지출의 부진 등 침체요인도 겹침에 따라 7-9월기의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소비의 회복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앞으로도 주가상승 등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고용소득 정세의 힘입어 개인소비가 완만한 증가기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다만 회복기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과제로 제시하는 기관이 많음
- 기업실적의 개선 영향으로 임금증가율이 2018년도에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도 완만하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질임금의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소비는 가계의 절약지향성이 해소되지 않고, 임금상승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2) 설비투자

- 2017년 7-9월기의 설비투자는 전기비 0.2%로 4분기 연속 증가했음. 고수준의 풍부한 유동성 등에 의해 기업의 투자의욕은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 앞으로도 기업수익이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투자 등이 설비투자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이에 더하여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력화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큼
- 2018년도는 동경올림픽을 내다보고 인바운드 수요를 예측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 건설, 교통인프라 정비 등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투자확대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내수가 힘을 받지 못한 가운데,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 능력증강 등 적극적인 투자증가는 한정적이며, 이 때문에 설비투자 증가는 어디까지나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3) 수출

- 2017년 7-9월기 수출은 전기비 1.5%로 높은 증가를 보였음. 4-6월기에 감소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자기기 등이 회복한 외에, 일반기계의 증가가 계속되는 등 전체로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음

- 앞으로도 현재 제조업의 경황감 등도 세계적으로 양호하여 경기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세계적인 설비투자의욕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수출의 증가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2017년도의 전망도 상향수정 되었음
 - 다만, 이번 회복을 보인 IT관련 수출은 반도체의 수요급증으로 당분간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나, 속도는 2018년도에는 둔화될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확대속도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속도는 완만하게 감속할 것으로 보임

(4) 소비자물가 상승률

- 이토츠키 경제연구소는 잠재적인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수급갭은 일본내각부의 시산에 의하면 이미 수요초과로 반전되고 있어 2017년 7-9월기에는 수요초과폭이 GDP대비 0.6%까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상술한 경제상황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도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비 연율 1%정도의 성장, 즉 1%정도의 잠재성장률과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이 지속, 거시적으로는 수급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 이제까지 수요초과폭의 대GDP비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식품·에너지를 제외한 종합)과 같은 정도로 추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코어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 식품을 제외한 종합)은 2017년 중반에는 1%대 가까이까지 상승, 2018년도 후반에는 1%대로 상승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상회하면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조건은 갖추어질 전망
- 그러나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에 달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물가상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충분한 상승 또는 자원가격의 상승이 가능성 있는 요인이 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어느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2%의 물가 목표는 미달성된 채로, 즉 금융정책은 현행 초완화상태를 유지하면서 2019년 소비세 인상을 맞게 될 것임
- 소비세 인상 후 일본경제는 초금융완화가 지속되는데 더하여 인상폭이 2%p(8%-10%)로 전회의 3%p보다 적은 점, 식료품 등 일부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점, 많은 내구소비재가 대체구매기를 맞고 있는 점 등 때문에 경기가 꺾일 우려는 적음

-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일순한 후에는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에서 완전한 탈출로의 진행이 재개될 것임

2. 일본정부의 경제전망

- 한편 12월 19일 발표된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에는 2016년의 1.2%를 크게 상회하는 1.9%, 2018년도에는 1.8%로 감속될 전망

<표> 일본정부의 2017, 2018년도(회계년도) 일본정부의 경제전망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GDP(실질, 증가율)	1.2%	1.9%	1.8%
민간소비(실질, 증가율)	0.3%	1.2%	1.4%
설비투자(실질, 증가율)	1.2%	3.4%	3.9%
수출(실질, 상품·서비스증가율)	3.4%	4.8%	4.0%
수입(실질, 상품·서비스증가율)	-1.1%	3.3%	3.4%
소비자물가상승률)	-0.1%	0.7%	1.1%
무역수지(조엔)	5.8	3.7	3.1
경상수지(조엔)	20.4	21.4	22.8
환율(엔/달러)	108.4	111.9	112.6

자료 : 일본 내각부, 「2018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 특히 2018년도의 높은 성장은 각종 경제재정정책의 효과와도 맞물려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진전되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져 민간경제조사기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3. 종합 및 평가

- 이상 민간경제연구기관과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일본경제를 전망하면, 연구기관들과 일본정부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도는 수출의 증가 기조 유지와 함께,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함으로써 실질 GDP성장률은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높아질 전망
-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면 설비투자가 감소로 반전되고 주택투자도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GDP성장률은 감속
- 2019년도는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이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소비가 대폭 감속, 주택투자의 감소가 지속되어 실질GDP성장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2% 달성은 어려워,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일순한 후에야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탈출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상황으로의 진행이 재개될 것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반전

□ (중 합)

- '17.11월 대일무역적자는 2,208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감소
 - 대일 수출의 큰 폭 확대가 적자폭 축소에 기여
- '17.11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1%에서 5.1%로 상승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7%에서 11.2%로 하락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6%에서 7.9%로 상승

< 2017년 1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1,850	-12.1	-26.4	2,511	10.4	35.7	24,354	10.0
대일 수입	4,422	4.8	-10.2	4,719	10.0	6.7	50,170	16.8
무역 수지	-2,572	21.5	6.6	-2,208	9.5	-14.2	-25,816	24.1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7. 11월 대일수출은 2,511백만 달러로 전월비 35.7%의 큰 폭 증가
 - 이는 동기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총수출증가율이나 일본의 수입증가율을 감안하면 대일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였음을 시사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10월	-12.1	-26.4	7.1	-18.4	18.9	4.9
2017.11월	10.4	35.7	9.5	10.3	17.2	6.3
2017.1-11월	10.0	-	16.5	-	27.7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증가
 -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 증가폭이 219.7%로 가장 크며, 이어 석유화학제품, 농산물 등이 증가율 40%이상으로 뒤를 잇고 있음

< 2017년 1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1,850	-12.1	-26.4	2,511	10.4	35.7	24,354	10.0
1	광물성연료	117	-32.1	-55.8	374	58.0	219.7	2,602	34.0
2	철강제품	291	-0.8	-17.1	316	12.3	8.6	3,558	25.6
3	전자부품	147	-13.7	-0.7	156	-30.7	6.1	1,561	-10.8
4	정밀화학제품	116	9.4	-24.7	151	36.3	30.2	1,442	16.0
5	석유화학제품	95	-23.6	-38.3	151	30.7	58.9	1,474	22.9
6	산업용전자제품	108	-26.6	-26.5	146	-19.0	35.2	1,375	1.7
7	수송기계	102	-10.9	-30.6	123	2.3	20.6	1,429	8.8
8	농산물	78	-11.3	-22.0	115	24.3	47.4	980	13.7
9	기계요소공구·금형	81	-10.0	-30.2	97	10.1	19.8	1,019	2.4
10	금속광물	78	-27.1	-2.5	89	-9.8	14.1	830	-2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7.11월 대일수입은 4,719백만 달러로 전월비 6.7%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11%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10월	4.8	-10.2	7.9	-9.2
2017.11월	10.0	6.7	12.7	11.0
2017.1-11월	16.8	-	18.2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과 정밀기계 등 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출이 증가
 - 정밀화학제품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19.6%로 가장 큼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대일수입감소폭이 -14.7%로 가장 큼

< 2017년 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2017.10월			2017.11월			201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422	4.8	-10.2	4,719	10.0	6.7	50,170	16.8
1	전자부품	701	36.4	14.4	598	2.3	-14.7	6,114	14.1
2	철강제품	464	0.2	-17.3	554	27.9	19.4	5,574	15.6
3	정밀기계	567	36.2	-1.4	552	31.6	-2.6	7,174	108.6
4	정밀화학제품	331	-4.4	-17.7	396	16.4	19.6	3,866	7.2
5	석유화학제품	337	9.3	-15.7	347	0.8	3.0	4,059	16.2
6	수송기계	283	8.2	18.9	303	13.3	7.1	2,581	6.1
7	기초산업기계	262	-9.4	-5.4	296	2.9	13.0	2,958	5.9
8	산업용전자제품	232	-19.0	-20.5	277	6.2	19.4	2,758	-5.3
9	플라스틱제품	185	-10.5	-21.3	205	1.6	10.8	2,163	3.4
10	산업기계	146	-13.2	-22.8	153	-7.8	4.8	1,970	0.4

2. 일본인 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 (동 향) '17.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 '17.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67백만 달러로 전기비 110.4%의 큰 폭 증가

- 건수 면에서도 전기비 19.4% 감소

- 반면,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0.5%의 큰 폭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5		2016		2017.1분기		2017.2분기		2017.3분기		2017.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69 (-24.2)	407 (13.4)	98 (42.0)	412 (1.2)	79 (-19.4)	867 (110.4)	246 (18.3)	1,686 (90.1)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632 (-25.1)	3,851 (-38.4)	655 (3.6)	5,745 (49.2)	640 (-2.3)	3,991 (-30.5)	1,927 (-10.1)	13,587 (-9.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일본 중견기업 제일시설공업(주)이 부산시에 100억 엔을 투자(2017.12.11 국제신문)

- 제일시설공업은 산업용 클린이송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 세계 반도체용 클린 이송장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일본의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부산시 미음 외국인투자지역에 9,917㎡ 규모의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
-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11월 22일 스미토모세이카사와 고흥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8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2017.11.22. 연합뉴스)
- 스미토모세이카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정밀화학기업임
-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 기업인 일본의 아이리스오야마가 IFEZ(인천경제자유구역)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 부지 2만7619㎡ 규모로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건립 (2017.11.14. 일간경기)
- 아이리스오야마는 송도 지구에 5000만 불 이상을 투자해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 시설을 건립할 예정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요인과 사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7.11월~2017.12월)

□ 국내 기관

- 『일본은행 12월 단칸, 제조대기업 업황지수 5분기 연속 상승』 한국은행, 2017년 12월1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121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투자신탁시장의 현황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12월9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일본 3/4분기 실질GDP성장률(개정치)』 한국은행, 2017년 12월8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1051&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11월25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최근 일본의 금융동향』 한국은행, 2017년 11월2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0725&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공장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산업연구원, 2017년 11월23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list&idx=53789&recom=2914&ord=0

□ 일본 기관

- 『경제·집적 분산의 공간범위』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12월21일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7e125.html>
- 『2017년판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일본생산성본부, 2017년 12월21일
http://www.jpc-net.jp/intl_comparison/
- 『2018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일본 내각부, 2017년 12월19일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mitoshi.html>
- 『1차 산업을 핵으로 한 성장산업모델화 조사』 경제산업성, 2017년 12월13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692.pdf
- 『수익기회를 찾아 증가하는 일본기업의 대외 M&A』 2017년 12월13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capital-mkt/20171212_012549.pdf
- 『세계와 일본의 FTA일람』 JETRO, 2017년 12월12일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8224a285c5cb4bd3/20170081.pdf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일본 내각부, 2017년 12월9일
http://www5.cao.go.jp/keizai1/package/20171208_package.pdf
- 『일본산업의 중기전망(2018-2022)과 사업전략』 미즈호종합연구소, 2017년 12월9일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m1058.html>
- 『중소기업의 수출계속 요인』 일본정책금융공고종합연구소, 2017년 12월8일
https://www.jfc.go.jp/n/findings/pdf/ronbun1711_02.pdf
- 『JETRO 대일투자보고 2017』 JETRO, 2017년 12월6일
https://www.jetro.go.jp/ext_images/_News/releases/2017/4489992b7205bb94/outline_jp.pdf
- 『일본의 4정면 통상전략과 지역통상질서』 미즈호종합연구소, 2017년 12월1일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opinion/eyes/pdf/eyes171130.pdf>
- 『수출의 공급제약과 환경변화』 스미토모상사 글로벌리서치, 2017년 12월1일
<https://www.scgr.co.jp/report/survey/2017113029457/>
- 『일본의 중장기비전 검토에 관한 조사 최종보고서』 경제산업성, 2017년 11월29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280.pdf
- 『일본경제정보 2017년 11월호』 이토추경제연구소, 2017년 11월28일
https://www.itochu.co.jp/ja/economic_monitor/report/2017/_icsFiles/afiedfile/2017/11/27/20171127_J.pdf
- 『일본통계연감』 일본 총무성, 2017년 11월25일
<http://www.stat.go.jp/data/nenkan/67nenkan/index.htm>
- 『Economic Trends:민간경제조사기관의 경제전망』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7년 11월21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7/saito1711tasya.pdf>